

“KIA, 투·타 모두 강해졌다”



김종국 감독

김종국 감독, 시범경기 8승2무3패 성적표로 마무리
“화끈한 공격적인 야구로 승부 ... 개막까지 준비 잘 하겠다”

“팀이 강해졌다”며 KIA 타이거즈의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웃었다. KIA는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을 끝으로 2022시즌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13일 NC, 19일 롯데 그리고 26일 한화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13경기를 소화한 KIA는 8승 2무 3패라는 성적표를 작성했다. 스프링캠프 첫날 ‘팀워크·멘탈·소통’을 강조했던 김종국 감독은 캠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이었던 시범경기에서 달라진 선수들의 모습을 보였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왔고 주문한 대로 잘 움직였다. 타자, 투수들 모두 생각했던 것보

다 잘해줬고, 멘탈 쪽이 강해졌다. 선수단 분위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팀을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제 시즌이 개막하는데 시범경기를 토대로 다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 같다. 전력으로 개막전에 임하려고 한다.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해줬고 시범경기에서 많이 올라왔다. 투수, 야수들 모두 공격적인 면을 보였다. 페넌트레이스 때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면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투·타 모두 두려움 없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는 결과로도 나왔다. 투수들은 더 빠른 템포로 승부에 나섰다, 야수들도 과감하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뛰었다. 접전 상황에서도 KIA의 공격적인 면과 집중력이 돋보였다. 김 감독은 “접전 상황에서 이겨야 힘이 생기고 팀

이 강해진다. 1점 차, 접전 승부, 역전승도 많아 이기는 요령도 알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은 야구를 표방하면서 투수 코치에게도 공격적으로 하자고 했다. 타자들에게도 존에 들어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스윙 가져가라고 했다. 앞으로 좋은 카운트에서 빨리 공격하도록 주문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러 포지션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KIA는 시범경기를 통해 달라진 전력을 보여줬다. 특히 ‘신형 엔진’ 김도영과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 나성범을 더한 타선에 한층 무게감이 더해졌다. 사령탑이 주문한 뛰는 야구도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득점 확률을 높이며 올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준비는 잘 끝났지만 4월 2일 개막까지 아직 남아 할 산이 있다. ‘코로나19’가 우선 경제 대상이다. 김 감독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인데 부상

과 코로나가 가장 변수다. 선수들이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휴식일을 보낸 선수단은 31일과 4월 1일 컨디션에 초점 맞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일 합평 웰린저스필드에서 시작된 경쟁은 3월 29일 시범경기 최종전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 ‘본무대’를 위한 체제로 전환되면서 동행이 이어 가지 못하는 선수들도 나온다. 사령탑은 시작보다는 끝을 이야기했다. 김 감독은 “개막전 엔트리 안 들어갔다고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니고 시즌 중 후반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초반을 준비한 선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풀업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며 “선발 후보였던 임기영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플랜비가 일찍 가동돼서 대체 선수도 잘 준비됐다. 전쟁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깜짝’ 김도영

0.432 시범경기 타율 1위
“정규시즌에서는 더 잘 해야죠”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프로 첫 시범경기를 타율 1위로 마무리했다. KIA는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렀다. 이날 KIA는 3-3으로 맞선 9회말 나온 좌익수 끝내기 실책으로 4-3 승리를 거뒀다. 28일 1회 사구를 맞고 교체됐던 나성범이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이상 무’를 외쳤고, 마무리 정해영은 이를 연속 마운드에 올라 연투 테스트를 끝냈다. 그리고 김도영은 마지막 경기에서도 안타를 더 하면서 ‘0.432’의 타율로 프로 데뷔 리허설을 끝냈다. 팀은 물론 전체 1위의 성적이다. 김도영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12경기에 나와 41타수 18안타를 기록했다. 3개의 2루타와 2개의 홈런도 남겼다. 다양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면서 안타를 수집한 김도영은 빠른 발을 활용한 내야안타까지 선보이면서 이번 시범경기의 ‘슈퍼 스타’가 됐다. 시범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도영의 시선은 4월 2일, 개막전으로 향해 있다. 김도영은 “정규시즌 잘 하자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다. 솔직히 (시범경기에서) 잘 하고 싶은 마

음은 있었는데 홈런 치고 그럴 줄은 몰랐다. 괜찮았다”고 시범경기를 평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타구는 24일 키움전에서 애플러를 상대로 기록한 두 번째 홈런이다. 이날 김도영은 초구 스트라이크에 이어 볼을 하나 지켜냈다. 이어 헛스윙으로 1볼 2스트라이크. 김도영은 파울로 공을 하나 커트한 뒤 139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김도영은 “애플러를 상대로 홈런 친 타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변화구 홈런 친 것도 살면서 처음인 것 같다. 그때 손맛을 잊을 수 없다”고 웃었다. 예상은 넘어서는 시범경기를 보냈지만 프로의 벽도 느꼈다. 시범경기 막판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 김도영은 상대의 집요해진 승부도 체감했다. 김도영은 “체력적으로 떨어진 기간이 있었다. SSG와 경기할 때 상대가 어렵게 승부하는 것도 많이 느꼈다”면서도 “매 경기 하나씩 치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SG 2연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시범경기 막판에 진짜로 제대로 된 투수들 볼도 쳐보고 했는데 확실히 변화구 질이 달랐다.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점이 있어서 생각하면서 타석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시선 그리고 수비에 대한 부담감은 지웠다. 김도영은 “지명받을 때, 1군 합류했을 때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부담은 안 된다. 자신감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자신감 없으면 들어가기도 전에 지는 것이라고 생각 해서 자신 있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며 “수비할 때 강한 타구가 무섭지는 않다. 정확한 수비 위치를 몰라서 시합 뛰면서 위치 조정하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다른 것은 연습 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김도영

광주FC 이도움·헤이스 K리그2 2라운드 베스트 11



이도움

헤이스

광주FC의 승리를 합작한 이도움과 헤이스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2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왼발의 달인’ 이도움(MF)과 ‘해결사’ 헤이스(FW)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 열린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나란히 골을 기록하면서 2-0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도움은 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슈팅으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헤이스는 1-1로 맞선 후반 41분 이도움의 오른발을 거쳐 허울이 머리로 넘겨준 공을 받아 오른발로 결승골을 장식했다. 3연승 뒤 부천 원정에서 0-2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한 경기 쉬고 다시 승점 3점을 만들면서 부천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광주는 3일 오후 1시 30분 경남FC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역시’ 나성범

공에 얼굴 맞고도 타격훈련
시원한 홈런포로 후유증 날려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새 출발을 앞두고 역풍을 했다. KIA는 지난 28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가슴 철렁한 순간을 경험했다. 나성범이 1회말 첫 타석에서 오원석의 공에 오른쪽 광대 부위를 맞으면서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다. 이후성으로 교체된 나성범은 바로 구단 지정병 원인 선한병원으로 이동해 검진을 받았다. CT 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KIA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공이 어깨 쪽을 맞은 뒤 ‘검투사 헬멧’ 보호대 부위로 향하면서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나성범은 경기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병원에서 복귀한 나성범이 방망이를 들고 최형우, 황대인, 이우성, 김선빈 등과 특별 타격 훈련에 나선 것이다. 그냥 방망이만 휘두른 게 아니었다. 나성범은 홈런존을 때리는 커다란 타구까지 만들면서 최형우의 박수를 끌어내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그 대표 타자가 허명(虛名) 아니라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29일에도 나성범은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SSG의 추신수도 나성범의 얼굴과 헬멧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슴을 졸였던 김종국 감독은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보지 않고 검사 결과도 단순 타박이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다. 지금은 누구든 부상 당하면 안 되는 시기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제일 중요한 게 부상이다”고 말했다. 나성범의 특타 장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대한 선수단의 각오라고 볼 수 있다.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운동 선수들은 그런 투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새 유니폼을 입고 새 시즌을 앞둔 나성범은 “다행”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나성범은 “바로 얼굴에 맞은 느낌이었었는데 영상을 보니 어깨를 먼저 맞았다. 광대뼈가 얼얼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얼굴에 공자국이 났었다. 얼굴은 괜찮은데 어깨에 멍이 들었다(웃음)”면서 “어깨 덕분에 크게 안 다친 것 같다. 지금 부상이 가장 중요하데 다행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시합도 안 뛰었고 원래 특타가 예정돼 있었다. 야간 때 훈련을 많이 못 하니깐 시야도 그렇고 공 좀 보려고 검사 검사 훈련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성범은 29일 첫 타석에서 담장을 넘기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나성범은 1회말 첫 타석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SSG 노경은의 143km 직구를 우중간 담장으로 넘기면서 시범경기 두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사구 후유증을 날린 시원한 홈런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

“토틸 손흥민 가장 치명적 피니셔” EPL 홈페이지서 조명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틸)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홈페이지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조명받았다. EPL 홈페이지는 29일(한국시간) 2021-2022 시즌 중간 평가의 하나로 득점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3골을 터뜨려 20골의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에 이어 디오구 조타(리버풀)와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 살라흐와 격차는 꽤 있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해리 케인(토틸), 사디오 마네(리버풀-이상 12골) 등 세계적인 선수들보다 많은 골을 기록하며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EPL 홈페이지는 손흥민을 ‘이번 시즌 득점왕 경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라고 표현했다. 득점 전환율이 27.1%로 지난 시즌의 32.1%보다 떨어졌으나 여전히 리그 최고이며, 페널티킥 없이 13골을 만들어냈다고 각종 기록도 소개했다. 아울러 EPL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홈 경기에서만 10골을 넣어 리그 최다골 기록 중이라고도 전했다. 손흥민이 경기 후반부에 특히 강한 점도 부각됐다.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13골 중 8골을 후반 15분 이후에 터뜨렸다. 이는 살라흐와 더불어 EPL 내에서 가장 많다. /연합뉴스